

화교자본 유치 '러브콜' 한창 (서울신문 2005.10.07)

화교자본 유치 '러브콜' 한창

[서울신문 2005-10-07 08:45]

[서울신문] '화교자본을 잡아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화교자본에 향한 '러브콜'이 한창이다.

특히 오는 10~1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제 8 차 화상(華商)대회'를 앞두고 자치단체 간 경쟁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는 6일 세계 화상(華商)대회에 유치단을 보내 화교자본 유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간기업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유치단은 행사장에 울산투자홍보관을 설치하고 울산지역 투자환경과 관광여건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열릴 한국투자설명회에서는 화상인 300여명에게 울산투자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내용과 오토벨리사업, 동해안 북구 강동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대회기간 코엑스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활동을 한다. 경남도는 김해시가 신어산 자락에 종합 레저타운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에코 워터파크 조성계획'을 중점 설명하고, 투자자를 끌어 모을 계획이다.

엠차이나타운(주)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에서 일산 차이나타운 1단계 건립 공사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일산 차이나타운은 부지 면적 2만 1000여평, 연면적 17만평으로, 부지 면적 기준으로 인천 차이나타운(7700여평)의 3배

가까운 국내 최대 규모다.1 단계로 1200 억원을 들여 4000 여평에 지하 2 층, 지상 3~6 층(건축 연면적 1 만 5000 여평)의 '파크 애비뉴'와 '칭화(淸華) 윈도'를 지어 2007 년 3 월 개장할 계획이다.

또 칭화 윈도에는 지하 3 층, 지상 12 층(연면적 7000 평) 건물이 들어서 칭화 신과학기술센터 분원과 칭화대 계속교육원의 분교가 입주, 한중 산업과 기술 교류의 메카 역할을 맡게 된다. 엠차이나타운은 2 단계로 2009 년 말까지 차이니즈 가든(6500 여평),2010 년 까지 차이니즈 팰리스와 게이트(1 만여평)를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엠차이나타운이 착공 시기를 7 일로 맞춘 데에는 이번 화상대회에 참가한 화교 자본 유치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2 년 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 화상대회는 세계 유력 화상들이 참석하는 화교 기업인들의 경제올림픽으로 불린다. 각 자치단체는 이번 서울 화상대회가 동남아 경제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자본을 유치하는데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고양 한만교 울산 강원식기자

mghann@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